

솔밭공원에 모여 북한산 둘레길 가족과 함께 걸어

▣ 총동문회 산악회는 지난 2012년11월4일(일) 오전10시 우이동 덕성여대 입구 솔밭공원에 모여 북한산 둘레길 일부 구간을 가족과 함께 걷는 행사를 가졌다. 매년 가을이면 가족과 동문이 함께 어우러져 산행하는 행사로서 이번 대회는 25회가 주관을 했다. 특별한 회비는 없으며, 산악회 발전기금으로 개인별 2천원을 받고 있으며, 적당한 장소에서 각자 준비해 온 음식을 삼삼오오 모여 앉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행사를 끝낸다. 그리곤 행사가 끝나면서 각기별 또는 가까운 동문끼리 별도로 만나 특별한 시간을 갖고 늦은 시간까지 정을 나누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제5회 광운동문 가족산행

▣ 행사당일 예보에 의하면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었다. 많은 동문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었고, 날씨가 짜릿한 햇빛으로 바뀌어 가을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켰다. 크고 작은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날씨다. 날씨가 큰 부주를 해 준다는 말도 있듯이 날씨가 좋으니 나뭇잎도 우릴 반겼고, 머리위로 떨어지는 은행잎이 환영의 메시지라도 전해주는 듯 연신 날리고 있었다. 10여명의 부부가 참석했으며, 참석한 부인들은 노랑계 물든 은행잎을 주위 향을 맡는가 하면, 배낭 속에 잘 넣어 두는 모습이 사춘기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도착하는 동문들은 준비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기념품(스텐소주잔)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행사가 시작됐으며, 행사는 25기 산악회장 나채홍 동문이 선두에서 선배들과 함께 출발했고, 동문들이 그 뒤를 이어 따랐다. 북한산 둘레길 중, 2코스 순례길로 이름 붙여진 솔밭근린공원을 떠난 동문들은 4.19묘지 옆을 지나 독립운동가 이준열사 묘역을 지나니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 '사람이 산다함은 무엇을 말함이며 죽는다 함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고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으니 살아도 그릇 살면 죽음만 같지 않고, 잘 죽으면 오히려 영생한다. 살고 죽는 것이

다 나에게 있나니 모름지기 죽고 삶을 힘써 알지어라.'
▣...3코스 흰구름길, 화계사를 지나 산중턱 개활지에서 동문들이 다시 모였다. 행사를 주관한 나채홍(25회,산악회장) 동문의 사회로 간단한 의례가 있었다. 류희근 총동문회장의 축사, '동문회 발전을 위해선 각 동호회가 활성화 돼야만 되며, 그런 의미에서 산악회도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간

울긋불긋 단색의 등산복이 단풍잎과 같이...

절히 바라며, 행사를 위해서 애쓰는 주관기수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다. 이어서 발전기금 전달이 있었고, 김영건 고문의 축사로 이어졌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문회 발전도 있고, 동문들 개개인의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한다.' 고 했다. 주변의 단풍잎이 울긋불긋 아름다움을 수놓았고, 동문들 복장 역시 단풍잎과도 같았다.



▣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한다. 건강하지 못할 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겨내는 것이다. 많은 동문들이 있지만 동문 중에 상당히 많은 동문이 건강을 잃고 고생한다는 얘길 심심치 않게 듣는다. 마음 아프다. 최근엔 그런 저런 탓에 건강을 위한 세미나도 많고, 동호회도 많이 생겼다. 자신의 건강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언제 어느 곳에서고 나를 위한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다.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여럿 있지만 모두가 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쯤은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누군가 해주지 않는다. 설사 해 준다고 해도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도움만 줄 뿐이다. 따라서 내 스스로 움직여 몸의 균형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땀 흘린 후의 상쾌한 맛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최근 청소년들 중 많은 학생이 땀 흘리는 걸 싫어한다고 한다. 땀 흘려 운동하는 것 보다는 조용히 앉아 게임 등을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배낭을 걸머지면 마음이 가볍고, 즐거움이 앞서는 것과 땀 흘린 후의 가볍고 통쾌한 맛을 모르는 것이다. 안 해 봤으니 알겠냐만 문제는 안 하려한다는 데 최근 기성세대들은 시간의 틈만 생기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운동을 찾아 나서고 있다. 국가 대계를 위해선 아주

반가운 일이다. 개개인이 건강해야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건강해야 건전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 가을 동문 산행이 매년 실시되면서 같은 맥락에서 아주 좋은 징조라고 생각될 뿐 아니라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많은 동문이 모여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데 어떤 동문은 힘들어하는가하면 또 다른 동문은 힘들이지 않고 쉬엄쉬엄 잘 가는 경우를 우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각자의 체력이 다르기 때문이며, 경험이 많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기도 하다. 이런저런 것을 감안한다면 다음부터 출발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번 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준비 운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서 오는

경우다. 모든 운동은 처음 시작을 내 자신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 다음 행동을 한다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많은 동문이 함께 움직여 아무 사고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잘 정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갖춰 입으면 보기에 좋다. 하지만 보기 좋으라고 입는 것만이 아니다. 등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됐고,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이기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 큰 투자를 하는 것이다.

▣ 각 기수 또는 친분이 두터운 동문끼리 자릴 잡고 앉았다. 배낭 속에서 새로운 얼굴을 내밀며 나타나는 음식들, 그리고 막걸리에 소주가 보이니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참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해 왔다. 인심도 좋다. 얼굴만 비쳐도 이것저것

챙겨주며 넉넉한 인심을 보여준다. 모두가 동문가족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좋은 날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둘레길을 걸으니 모두가 넉넉해졌다. 이런 모습이 한없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서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